

‘더현대 광주’ 10월 첫삽... 2028년 상반기 오픈

광주시·현대백화점, 착공보고회

19세기 유럽 모티브·플로팅 가든
실내식물원·복합문화공간 조성
한옥지붕에 400평 유리천장 설치
羨 “떠나지 않는 광주 만들 것”

광주지역 최초·최대 규모 민간 복합문화상업시설이자 미래형 복합쇼핑몰인 ‘더현대 광주’가 2028년 상반기 쇼핑을 넘어 예술과 문화, 자연, 역사를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문을 연다.

광주광역시와 현대백화점그룹은 8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 착공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공보고회는 지난달 18일 건축허가가 승인됨에 따라 착공까지의 추진경과, 비전·로드맵, 내·외부 콘텐츠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착공보고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이사, 나원중 더현대 광주 법인장 등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나원중 더현대 광주 법인장이 △건축 전반에 대한 개요·추진 경과 △착공 등 향후 공사 일정 △공사가림막에 표현되는 디자인 방향성 △쇼핑·문화·예술이 어우러진 주요 공간 구성계획 등 콘텐츠에 대해 발표했다. 또 더현대 광주의 비전과 내부 공간을 소개하는 영상도 시청했다.

‘더현대 광주’는 연면적 27만2955㎡(8만2569평), 영업면적 10만890㎡(3만평), 지하 6층~지상 8층 규모, 총 주차대



현대백화점그룹은 8일 광주광역시청에서 ‘광주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 착공보고회’를 열고, 오는 10월 착공, 2027년말 준공, 2028년 상반기 오픈 등 건설 계획을 밝혔다. 사진은 ‘더현대 광주’ 외부 조감도. **광주시 제공**

수가 2652대에 달하는 초대형 복합쇼핑몰이자 광주 도심에 들어서는 최초의 대규모 민간 복합문화상업시설이다.

‘더현대 광주’는 예술·전시·공연 등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구성된다. 1~2층은 19세기 유럽 도심가를 모티브로 한 ‘럭셔리 스트리트’로 꾸며지며 지상 1층부터 천장까지 약 60m를 관통하는 대형 중앙 보이드 공간을 통해 압도적인 개방감을 선사한다. 2층은 자연과의 조화를 상징하는 ‘플로팅 가든’ 두 곳이 조성, 도심에서

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3~5층까지는 수직 조경과 다양한 콘텐츠, 예술적 조형물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구성된다. 또 상업시설 최초로 대규모 실내 식물원을 도입해 ‘리테일 테라피(도심 속 휴식공간)’라는 새로운 개념을 실현하고, 예술·전시·공연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도 조성할 계획이다.

6~7층은 한옥 형태의 지붕과 안마당을 활용한 설계로, 전통과 현대가 결합된 공

간으로 마련된다.

지난 2022년 11월 현대백화점그룹이 더현대 광주 건립 계획을 담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이 시작돼, 지난해 1월 세계적 건축가 ‘헤르조그 앤 드 뫼롱(Herzog & de Meuron)’의 설계로 내·외부 공간의 완성도를 높였다. 지난해 2월에는 광주 현지법인인 ‘더현대 광주’가 설립됐고, 올해 6월18일 건축허가 승인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다.

‘더현대 광주’는 오는 10월 착공해

2027년말 준공, 2028년 상반기 오픈이 목표다.

나원중 더현대 광주 법인장은 “더현대 광주는 광주 최초이자 최대의 미래형 복합쇼핑몰”이라며 “더현대 서울 이상의 공간 혁신과 호남의 문화유산을 접목한 콘텐츠를 선보이겠다. 광주 시민은 물론 국내외 고객이 함께 찾는 글로벌 랜드마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비전을 밝혔다.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는 “ 불과 1년 만에 모든 건축허가가 끝이 났고 착공을 눈앞에 뒀다. 강기정 시장과 광주시 관계자들의 강력한 의지와 신속한 행정지원 덕분에”라며 “전 세계 관광객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글로벌 랜드마크로 더현대 광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더현대 광주’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담당 부서와 자치구 등이 참여해 논의하는 ‘신활력행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신속·투명·공정 3대 원칙 아래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통상적으로 교통영향평가, 경관·건축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치는데 19개월이 소요되나 8개월 가량을 단축, 11개월 만에 신속히 완료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의 미래를 볼 때 신속한 행정지원이 광주에 투자하는 기업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고, 투명·공정하게 하는 것이 시장으로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더현대 광주는 시민들이 누리고 즐기는 문화공간이자, 떠나지 않는 광주 만들기의 전략이다”고 말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광주다움 통합돌봄’ 선진 모델로 국회도 주목

‘국회 연구모임’ 실천현장 방문 응급의료지원단 등 사례 확인 의원단 “입법으로 뒷받침할 것”

광주광역시의 대표 공공정책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일본 학술대회 초청에 이어 국회의 주목을 받으면서 전국 확산 가능성에 힘을 얻고 있다.

광주시는 8~9일 이틀간 국회의원 연구

모임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소속 권향엽·김윤·남인순·백선희·서미화·이수진·전종덕·전진숙 국회의원 8명이 광주를 방문해 통합돌봄 정책과 실천 현장을 둘러본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의 조기 안착을 위한 선진사례 확인 차원에서 진행됐다.

의원단은 이날 광산구 수완동 행정복지센터와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지원단,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수완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돌봄콜’을 통한 1:1 맞춤형 돌봄 △전담 공무원의 1:1 돌봄 매칭 △고립가구에 대한 의무방문 제도 △행정-민간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산시스템 등 공공의 책임성을 극대화한 ‘광주다움 통합돌봄’ 체계를 확인하고, 현장 간담회를 통해 정책 성과와 확산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에서는 쪽방촌 주민들의 자발적 공동체 활동인 ‘요리나눔교실’, 골목 청소 등 지역환경 사례를 살피며 “단순 서비스 제공을 넘어 ‘관계 기반 돌봄’으로 발전한 공동체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공공 의료정책의 핵심인 응급의료 현장도 방문했다. 의원단은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지원단과 간담회를 통해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원스톱 응급의료 플랫폼’ 구축 사례를 공유받았다.

의원단은 9일 광주가 전국 최초로 시작

한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를 방문해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청년들과 가족을 위한 회복지원 활동 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다.

지역의 실천적 돌봄 현장과 직접 소통한 의원들은 “광주는 돌봄의 정의를 새롭게 쓰고 있는 도시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제도화 현실을 연결하는 소중한 계기였다”며 “돌봄이 단지 복지의 영역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의 권리임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상아 기자

그린 알로에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로에 베라겔 함유율 400%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능 알로에베라겔 함유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물입니다.